

페터 한트케 노벨문학상 수상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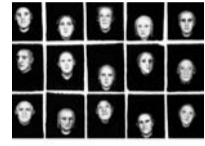
“90년대 ‘인종청소’ 밀로세비치 옹호”
美 펜클럽·코스보 피해자들 취소 요구
한림원 “문학·미학적 기준 선정”
공동수상 토크르츠크 등 작품판매 급증



페터 한트케



올가 토크르츠크



오랫동안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76)의 선정을 두고 비판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문단에서는 한트케의 선정에 대해 대체로 ‘수상할 만한 작가가 선정됐다’는 공감에 있는 반면, 그의 역사 인식과 처신에 비판적이었던 단체는 취소 요구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한트케는 1990년대 유고 내전 당시 ‘인종 청소’로 악명이 높았던 밀로세비치(1941-2006)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밀로세비치는 유고 연방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주창해 내전에 불씨를 당긴 인물이다. 당시 알바니아계 인구가 대다수인 코스보에는 유고 연방이 해체될 때 독립을 요구했지만 참혹한 내전에 휩싸였다. 당시 밀로세비치는 알바니아계 ‘인종 청소’를 주도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사실 한트케는 오랫동안 노벨 문학상 단골 후보로 오를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였다. 그러나 언급한 대로 정치적인 논란으로 지금까지 상을 수상하지 못했다.

이번 선정에 대해 코스보 내전의 피해 당사자와 각계에서는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문학상 표현의 자유 옹호단체인 미국 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에 민족주의와 권위주의적 지도력, 광범위한 허위정보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그의 수상자 선정이) 문학계의 기대에 못 미친다”며 “노벨위원회의 문학상 선정에 깊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코스보에서 출생한 젠트 카카즈 알바니아 외부장관도 “인종청소를 부인하는 인물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다니 끔찍하다”며 “2019년에 우리가 목격하는 이 일은 얼마나 비열하고 부끄러운 행태인가”라고 비난했다. 코스보의 블라라치

타쿠 미국주재 대사는 트위터에서 “훌륭한 작가들이 많은 세상에서 노벨위원회는 하필 인종적 증오와 폭력의 옹호자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같은 한트케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06년 전범 재판을 기다리던 중순 밀로세비치 장례식에서 장례식 조사를 읽은 행태도 원인이 됐다. 한트케는 당시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인터뷰에서 “밀로세비치는 영웅이 아니고 비극적인 인간”이며 “나는 작가일 뿐 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AFP 통신에 이번 문학상 선정에 대해 “스웨덴 한림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용기 있는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프랑스 파리 외곽에서 거주하는 한트케는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림원은 “인간 체험의 주변부와 개별성을 독창적 언어로 탐구해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며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으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도

“이 상은 정치적 상이 아니라 문학상이다. 문학적이고 미학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수상자 한트케와 공동 수상자 폴란드 출신 올가 토크르츠크의 국내 작품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24에 따르면 수상 발표 이후 2일간(10일 오후 8시~11일 오후 1시) 한트케의 ‘관객모독’ 100권, 토크르츠크 ‘태고의 시간들’이 152권 판매됐다. 이들 작품들은 수상 발표 직전 일주일 간 판매량은 ‘관객모독’이 1권, ‘태고의 시간들’이 1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수상 발표 이후 국내 출간된 한트케 저서 판매량이 288권, 토크르츠크는 222권을 기록했다.

한트케의 책은 자전적 성장소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관객모독’, ‘소망 없는 불행’ 등 모두 8종이 팔려나갔다. 아울러 토크르츠크는 ‘잃어버린 영혼’, ‘태고의 시간들’ 등 모두 3종이 판매됐다. 에스24는 2018, 2019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와 역대 수상작가들의 책을 모아 소개하고, 해당 도서를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에게 ‘바케트 에코백’을 증정하는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교보문고 또한 두 수상 작가의 작품의 선정 발표 이후(11일 오후 2시 기준) 전체 500여 부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와 ‘태고의 시간들’이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예약판매 중인 토크르츠크의 ‘방랑자들’도 국내에 첫 소개 될 예정이어서 노벨문학상 이슈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율성과 쇼스타코비치... 3·1운동 되돌아보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17일 금호아트홀 정기연주회



제에 의한 변주곡(김선철 작곡)을 김정아와 김형미가 연주한다. 이어 쇼스타코비치가 스탈린, 히틀러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자 썼다고 전해지는 ‘교향곡 제7번 레닌그라드’ 전 악장을 조혜원·최연주·이지은·윤상아·서유아·이현주·김아연·이현주가 함께 연주한다.

‘광주피아노아카데미’ (회장 김정아·사진)가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54회 정기연주회 ‘정율성과 쇼스타코비치’를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날 공연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의열단에 가입, 활발한 항일투쟁을 펼쳤던 정율성, 나치의 참혹함을 음악을 통해 알렸던 쇼스타코비치의 곡으로 3·1운동을 되돌아보고자 기획됐다.

이날 공연은 한 대의 피아노에서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연탄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율성의 가곡 ‘아람에게’ 선율에 새로 화성을 입히고 변주곡 형식으로 작곡한 ‘아람에게 주

지역 피아니스트들의 발전과 교류를 위해 1990년 창립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는 지역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는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정기연주회, 신인연주자 육성 등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다. 전석 초대.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극단 바람꽃

화제작 ‘게릴라 씨어터’ 극단 바람꽃 스타일로 재구성

16~20일 공동 예술극장

‘극단 바람꽃’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공동 예술극장(광주 동구 예술길 18-1)에서 연극 ‘게릴라 씨어터’를 공연한다.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이날은 2014년 초연, 서울연극제 공식참가작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던 오세혁 작 코미디 연극 ‘게릴라 씨어터’를 극단 바람꽃의 스타일로 각색해 무대에 올린다.

‘대장, 왕눈이, 투털이, 쌍커피’ 이 어느 정글의 게릴라 아지트에 모였다. 하지만 이들은 비행기를 본 적도 없음을 뵈더라도 가진 것이라곤 나무로 만든 총 뿐인 순박한 사람들이다. 어느 날 정글에 배라가 뿌러지고, 정글 아래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연극을 준비하는데...

장영은이 각색을 맡고, 강예찬·신은수·김예성·서혜민·김정규 등 배우가 출연한다. 관람료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집을 떠나온 4명의 게릴라

“이민생활 44년... 후손들에 나의 뿌리 알리고파”

윤동주 해외작가 특별상 이우식 시인 에세이집 ‘뿌리’ 펴내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뿌리를 알려 주어야 되겠다. 나는 사명감을 여쭙하라.”

2018년 윤동주 서시 해외작가 특별상을 수상한 민초 이우식 시인이 에세이집 ‘뿌리’ (연인M&B)를 펴냈다. ‘44년 캐나다 이민자의 뒤안길’이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책은 캐나다 이민자로서의 지난 시간을 기록하는 동시에 자신의 뿌리를 기록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저자의 말대로 이민 생활이 44년이 됐다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제2의 조국인 캐나다의 삶이 더 길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

다. 그것은 자손들이 캐나다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내 나이가 칠순을 훌 넘겼기에 나의 삶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왕 쓰는 글 내가 이곳에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생전의 과정을 나의 후손들에게 알려 줘야 큰 뜻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쓴다.”

책은 모두 9부로 구성돼 있다. 1부 ‘나의 뿌리, 우리 족보’, 2부 ‘어머니 캐나다 방문 육필 수기’, 3부 ‘이민 동기와 이민 고충’, 4



부 ‘동포 사회를 위한 활동’, ‘민초해외문학상 제정 이유와 활동 내용’, 6부 ‘인생길 산책’, 7부 ‘단편소설’, 8부 ‘말순을 바라보는 생존과 슬픔의 빛깔’, 9부 ‘모교인 영주 제일고 시비 제막식 및 사진 화보’ 등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고려 문신 탁광무 시문 번역한 ‘국역 경령정집’ 발간

탁광무(卓光茂·1330~1410)는 고려 후기 문인이자 정치가로 본관은 광산이다. 자는 겸부(兼夫)이고 호는 경령정(景濂亭),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조선 후기 이재현, 이색, 정몽주 등 당대 문사들과 교류했던 학자다. 고려의 문신인 광주 출신 탁광무의 시문을 번역한 ‘국역 경령정집’이 발간됐다. 조선대학교전통역연구회가 번역 총서 첫 번째로 발간한 이번 책에는 시와 고적(古蹟), 경령 선생 봉안문 등 다양한 글이 실려 있다. 탁광무의 호 ‘경령정’은 그가 벼슬에서 은퇴한 후 지은 정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주렴계의 사상을 경모한다”는 뜻으로, 절조의 삶을 상징하며 이제현이 정자 이름을 지어줬다.

탁광무는 어린 나이에 개경으로 가서 스승을 찾아 학문에 전념했다. 그 결과 복위한 충혜왕 원년(1340) 사마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공민왕 초에는 문과에 합격해 학자로서 명망을 얻었다. 그러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향리로 돌아가 늙은 부모를 봉양하였다. 이후 부친의 삼년상을 마친 후 헌납(獻納·관원)을 지냈다고 전해온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신협 815 해방 대출은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 상 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 출 한 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 출 금 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 요 서 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266-4150 (문흥지점) | 573-4150 (양산지점) | 528-4150 (운암지점) | 513-4150 (운암산지점) | 572-4150 (매곡지점) | 576-4150 (첨단지점)